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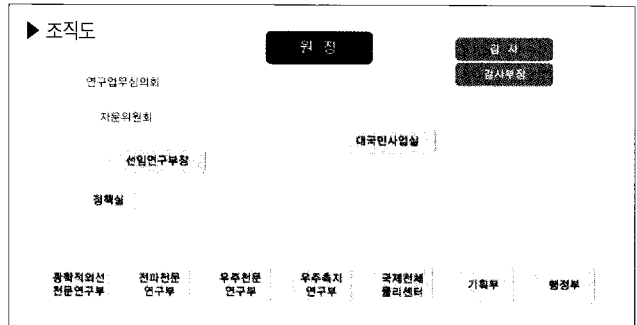


● 제3회 한국천문연구원-공군 간 우주분야 협력을 위한 확대협의회 개최

우리 연구원과 공군은 지난 7월 15일 공군본부 주관으로 제3회 한국천문연구원-공군 간 우주분야 협력을 위한 확대협의회를 공군 작전사령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군에서 전력기획참모부장, 우주발전과장, 기상전대장 등 9명이, 그리고 우리 연구원에서 원장, 선임연구부장, 우주천문연구부장 등 7명이 참석하였으며, 2006년에 체결한 '우주분야 상호협력 합의서'의 이행에 따른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우주분야 협력을 위해 양 기관이 신규로 제안한 안건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 제안하여 합의된 신규 의제들은 우주환경 예·경보체계 공동구축 및 운영방안, 우주감시체계 공동구축 및 운영방안, 우리 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공군사관학교 강의 및 사관생도 현장학습 지원, 그리고 우주방사선 항공실측 실험 시 항공기 지원 등 4건으로 각 의제와 관련하여 타당성 및 세부 협력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진행일정을 논의하였다. 우리 연구원과 공군은 국가의 우주력 증강과 양 기관의 우주분야 발전 및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6년 6월 '우주분야 상호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 조직 개편

우리 연구원은 지난 10일 기존의 6부 2센터 조직 체계를 '6부 1센터 2실' 체제로 개편하였다. 2005년도에 신설하여 최근에 그 임무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천문정보센터'를 폐지하고, 원장 직속 전락조직으로 '대국민사업실', 선임연구부장 직속 조직으로 '정책실'을 신설하였다. 대국민사업실 신설을 통해 UN이 정한 "2009 세계 천문의 해"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정책실 신설로 선진 전략경영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광학천문



연구를 수행하는 부서의 역할분석을 통해, 기존의 광학천문연구부를 광학적외선천문연구부로 재편하였으며, 우주과학연구를 수행하는 부서의 기능분석을 통해 기존의 우주과학연구부를 우주천문연구부로 재편하였다. 금번 개편은 우리 연구원의 글로벌 연구역량 확보에 초점을 둔 조직 개편이라는 점에서 그 전략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제2회 천문관측기기 워크숍

우리 연구원은 지난 7월 10~11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제2회 천문관측기기 워크숍'을 개최(전파천문연구부 주관)하였다. 2007년 6월 '제1회 천문관측기기 워크숍'에 이어 이번 2회 워크숍에서는 우리 연구원 및 관련 학계의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천문관측기기에 대한 활용 및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였고, 향후 발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이 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파, 광학, 우주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대표적으로 전파 분야의 KVN 구축 및 한일공동 VLBI 상관계 개발, 광학 분야의 대형망원경 구축, SLR, 적외선 분광기 등에 대한 개발과 관련 기술 분야, 우주 분야의 과학위성 3호의 각 구



성요소별 주요 개발과 그 성능 측정 등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되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우리 연구원을 주축으로 연세대, 경희대, 서울대, 경북대, 울산과학기술, 관련 기업체 등에서 90여 명이 참여하였고, 일본 NICT 및 VLBI2010과 관련된 내용의 초청강연을 포함하여 총 2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향후 지속적인 천문관측기기 워크숍의 진행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공유를 계획하고 있으며, 천문관측기기 분야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발굴하여 2009년 3회부터 더욱 알찬 내용으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 한국천문연구원, 중국 우한 지진연구소와 MoA 체결

우리 연구원 우주측지연구부는 2008년부터 우주측지용 레이저 추적시스템(Accurate Ranging system for Geodetic Observation, ARGO)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년간 230억 원을 투자하여 1m급 고정형 및 40cm급 이동형 SLR(Satellite Laser Ranging)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27일에 중국 우한의 지진연구소(Institute of Seismology, China Earthquake Administration, ISCEA)와 우주측지분야의 기술 교류 및 협력에 관한 MoA (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했다. 우한 지진연구소와의 MoA 체결을 통하여, 우주측지 기술, 연구자료, 연구인력 등의 상호협력체제와 함께 SLR 시스템 운영 및 자료처리 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오는 8월에 중국 이동형 SLR 시스템인 TROS(Transportable Ranging Observation System)를 도입하여 1년간 한·중 공동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TROS는 차량에 연결하여 이동하는 SLR 시스템으로, 전파연구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다. 크기 4×2×2.5m(길이×폭×높이), 무게 2,000kg의 컨테이너형이고, 10cm의 송신망원경과 38cm의 수신망원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세계 세 번째로 532nm의 Nd:YAG 레이저를 채택하고 있다. TROS는 SLR 시스템의 핵심기술 분석 및 관련기술 개발 등 ARGO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국내 최초로 레이저 반사경을 장착한 과학기술위성 2호(2008년 발사 예정)의 레이저 추적에도 활용될 계획이다. 우한 지진연구소와 우리 연구원의 이번 MoA 체결



결을 통해 국내 최초의 SLR 시스템인 ARGO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향후 중국 연구기관과의 활발한 연구교류를 통해서 우주측지 관련기술 및 응용연구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 연구원의 견학단체 증가



우리 연구원은 단체방문자들에게 기관의 이미지를 높이고 천문우주학을 홍보하기 위하여 방문자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단체방문자의 견학 프로그램은 온라인 견학신청을 통해 접수하며, 은하수 홀의 전시관, 고천문의기, 대덕 14m 전파망원경을 관람하는 등 약 1시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한 은하수홀 소강당에서 기관 소개 및 천문우주학 동영상 시청할 수 있다. 상반기에만 28개 단체, 1,300명이 우리 연구원을 방문하였으며, 7월에도 9개 단체 4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상반기 동안의 방문자들의 연령 분포를 보면 초등학생이 51%로도 가장 많았고, 일반 28%, 중고생이 20%를 나타냈다. 견학 내용의 수준에 대해 방문객들의 54%가 '적당하다'고 하였고, 견학 만족도에 대해 82%가 '만족'을 나타냈다. 견학 프로그램이 주는 천문우주학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설문에서는 방문객의 77%가 '만족'을 나타내었고, 안내자의 친절도에 대해서도 88%의 '만족'을 표현하였다. 은하수홀의 전시관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반 방문자에게 상시 개방된다.

온라인 신청 : http://www.kasi.re.kr/openservice/study_tour.aspx

● 부산 북구 사이언스 페스티벌 행사 후원

우리 연구원은 지난 18일 부산과학기술협의회가 주최한 '북구 사이언스페스티벌 - 별과 음악이 흐르는 밤' 행사를 후원하였다. 부산시 북구 구민운동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우리 연구원을 비롯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 북구 교육청, 국제신문이 후원하였다. 음악이 있는 별 강연, 이동천문대 차량 체험, 천체망원경을 이용한 여름철 별자리 관측과 과학드라마 공연, 우주 관련 영화 등 다양한 천문우주과학 체험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온 가족이 함께 참가하여 여름밤의 무더위를 날려버리는 지역시민축제가 되었다.